

GIST-국립재활원, 장애인·고령자 일상생활 돕는 보조기기 개발 컨설팅 지원

- 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, 국립재활원 보조기기실용화연구개발사업단과 함께 '장애인·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' 수상자 대상 컨설팅 실시
- '휠아차'(휠체어+유모차) 개발 위한 아이디어 도출 및 수요자 요구사항 청취... 지역 기반 보조기기 수요 발굴과 정책적 대안 제시 등 실질적 해결방안 모색



▲ 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'장애인·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'의 당선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. (왼쪽에서 세 번째) GIST 오창명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(센터장 오창명)가 국립재활원 보조기기실용화연구개발사업단과 함께 **휠체어와 유모차가 결합된 '휠아차'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** 나섰다 밝혔다.

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국립재활원은 **'장애인·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'**을 열고, 광주광역시에서는 **'휠아차'의 필요성을 제안한 박진경 씨를 수상자로** 선정한 바 있다.

박진경 씨는 경수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겪는 남편과 아직 잘 걷지 못하는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특히 **야외 활동 시 이동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공모전에 참가하게** 되었다고 밝혔다.

컨설팅은 7월 17일(수) 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오창명 센터장, 전남대 메이커스페이스 '만들마루' 강원석 팀장과 국립재활원 보조기기실용화연구개발사업단 안광옥 연구사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됐으며,

휠아차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및 요구사항 청취를 비롯해 지역 기반 보조기기의 수요 발굴과 정책적 대안 제시 등 지역사회 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대안 방안을 논의했다.

이날 지역 보조기기 수요자로 참석한 박진경 씨 부부는 **가사 및 육아, 욕창 예방 등 건강 관리에 대한 보조기기 필요성을 언급**하였으며, 국립재활원은 대상자의 신체 기능 평가를 통해 **사용자에 알맞은 보조기기 도출 및 사용 방법 안내, 장애인 고용 복지에 대한 정책 지원 등 해결 방안을 제시**하였다.

국립재활원 은선덕 팀장은 “이번 컨설팅을 통해 장애인과 노인의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를 발굴하고, 이를 통해 **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**가 되기를 바란다”며 “**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**”고 전했다.

오창명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은 “지역 장애인 및 돌봄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**이들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개발 및 보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**”이며, “이번 컨설팅은 **지역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속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**”고 밝혔다.

한편 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올해 보건복지부 ‘**지역기반 보조기기 R&SD**’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수요 중심의 보조기기 개발 및 사용성 평가, 보급 및 오픈소스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**장애인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발전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.**